

설봉 스님 도예 도량 창건

칠곡 토향암 15일 점안법회... 28일 개원

한국 최고의 도예가로 평가 받는 설봉 스님이 경북 칠곡에 도자기 문화관을 건립했다.

설봉 스님은 11월 15일 오후 2시 토향암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설봉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의 영험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점안식처럼 여러분도 건강하고 생명력있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향암은 법당과 다도 생활관, 도자기 전시관이 들어선 3층 규모의 본관과 도예 체험객들을 위한 요사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는 스님이 30여 년간 작업해온 생활도자기들과 작품들을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도록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스님이 직접 빚은 각양각색 도자기는 전통기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천연유약을 개발해 작업한 것들로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다. 스님은 “이번 도자기 문화관 건립을 계기로 불교와 도자기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고 도자기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30년 동안 목공예 및 도예작품활동에 매진하며 전시회 수익금을 군과 대학생 포교 및 소년소녀 가장, 위안부 할머니 등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보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토향암 개원식은 11월 28일 열린다. (054)972-5085

손법선 대구지사장

“보살계 수지 등불 얻는 것”

대전사암련 국난극복지원 대승보살계 수계법회 봉행

대전사암련합회(회장 도안)는 11월 14일 대전 보문고에서 국난극복지원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전계사사리에 태고종 혜초 종정스님, 갈마사사리에 총무원장 인공 스님, 교수사사리에 태고종 前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모시고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월중(化)으로 참석한 남호 스님(태고종 대전교구 승정), 대전교구 원로위원 원법 스님, 용수 스님, 지철 스님, 대전사암련합회 도안 스님, 연합회 원로위원 성운 스님을 비롯해 정광대 대전사암 신도회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부는 기법법회로 법륜 스님의 타



14일 대전 보문고에서 열린 대승보살계 수계대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무릎 꿇고 보살계 법문을 듣고 있다.

해초 종정스님은 법문에서 “<범망경>에 ‘중생이 대승보살계를 받으면 모두가 부처의 지위에 들 수가 있고(衆生受佛戒 卽入諸佛位), 대각한 세존과 같이 그 높은 지위에 이를 수가 있다. 그렇게 해야 모든 불자들이 참된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다(位同大覺 眞是諸佛子)’라고 말씀하셨다”라며 “보살계를 받는 것은 병든 자가 좋은 약을 얻는 것과 같고 어두움에 있는 자가 밝은 등불을 얻는 것과 같고 도량을 건너려는 자가 튼튼한 다리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2부 수계식은 삼사칠종의 증명으로 향을 사르며 부처님께 귀의하

고 수계를 고하는 거룩찬을 시작으로 청성, 청사, 계도, 참회, 연비, 수계, 선계상, 발원, 계접수여, 회향 순으로 여법하게 봉행되어 1000여 불자들이 수계를 받았다. 3부는 서거한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한 위패 2000여를 봉안해 선당 제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아울러 국민단인과 국난극복 기원을 위한 영산대재가 한국불교 전통문화진흥회 회원들에 의해 봉행됐다.

대전사암련합회 사무총장 남산 스님(태고종 대전교구 총무국장·태고사 주지)은 경과보고에서 “대전에서 개최된 국제우주대회와 전국체전을 기념해 봉행하려 했으나 여건이 안 맞아 늦추어 추진하면서 태고종뿐만 아니라 종단을 초월한 대전의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선연을 맺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전불교사암련합회와 태고종 대전교구가 공동으로 법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진산식 대신 ‘자비 김장’ 나눔

마곡사 원혜 스님 24~25일 쌀도 보시

주지 진산식을 대신한 ‘자비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린다. 공주 마곡사주지 원혜·사지는 11월 24~25일 경내 대광보전 앞마당에서 ‘마곡사 자비의 김장 나눔 한마당’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9월 마곡사 생태도량 선포식 때 심어진 자비배추 5000여 포기 ‘자비의 김장’으로 담겨져 쌀 1000포(10kg포대)와 함께 관내 소외계층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5일 오후 2시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 교역직 스님들과 중앙총회의원, 주요영 특임장관 등이 참석해 자비의 김장 전달 기념식을 가질 예정

이다. 원혜 스님은 “진산식을 지역의 고통을 보듬고 지역과 소통·화합하기 위해 회장을 보시하는 나눔 한마당으로 장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배추가 결각된 ‘일일부작 일일복식’ 생태농장은 마곡사의 3대지표인 ‘마음을 밝히는 수행도량’,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도량’, ‘이웃에 희망을 전하는 나눔도량’을 실천하기 위한 첫 불사로 개설한 자연법석이다.

조동섭 기자



천축사 은행나무 부처님 된다

240년간 호법... 둘레 4m 고목 삼존불로

240여 년간 서울 도봉산 천축사(주지 유방)를 지켜온 은행나무가 목조 삼존불로 환생해 법당에 모셔진다.

둘레 4m, 높이 20m의 이 은행나무는 지난 여름 집중적으로 쏟아진 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지난달 ‘서울시 지정 보호수’에서 해제됐

으며, 11월 15일 고사했다.

천축사 관계자는 “이 은행나무는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지면서 함께 들어온 수종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나무의 허리가 3m가 넘으니 나무를 조각해 삼존불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불교 콘텐츠 창작 기금 조성

진흥원·東大 ‘대원불교문화기금’ 지원 협약 체결

불교 콘텐츠 창작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운영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과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11월 18일 대교빌딩에서 ‘대원불교문화기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원불교문화기금’은 진흥원이 종립 동국대의 창조적 확장 전략을 통해 불교정신을 개발하고 현대적 불교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진흥원은 동국대에 2009~2011년 매년 1억원씩을 지원하고, 동국대는 진흥원으로부터 2007~2008년 지원 받은 2억원을 ‘대원불교문화



18일 대원불교문화기금 지원협약식을 가진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왼쪽)과 동국대 오영교 총장.

기금’으로 적립·합산하게 됐다. 조성된 기금은 진흥원과 동국대 인사가 참여한 ‘개원불교문화기금운영위원회’에서 동국대 교원·학부 및 대학원생·연구원

을 대상으로 ‘대원불교문화상’ 선정 작업을 통해 불교학술·불교창작 분야에 매년 3500만원씩을 집행할 예정이다.

수상자 선정은 불교학술 분야는 순수·응용 불교 관련 저술 및 논문을, 불교창작 분야는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 등을 내용으로 공모 또는 과제 지정 발주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다.

민병천 이사장은 “대원불교문화기금이 불교계 대표 대학인 동국대가 국내외 일류대학이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대장경지킴이 김영환 장군 추모

해인사에서 14일 봉행... 해인사 폭격 명령 거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팔만대장경을 지킨 김명환 장군(1921~1954)을 추모하는 의식이 11월 14일 해인사에서 봉행됐다.



14일 해인사에서 봉행된 김명환 장군 추모식.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해도·군 지역기관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명환 장군은 한국전쟁이 한

창이던 1958년 8월 공군 수비부로부터 공비소탕을 위해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찌 유동적인 수백명 공비를 소탕

하기 위해 세계적 보물인 팔만대장경을 찢더라도 만들 수 있겠나”며 거부해 민족의 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인물이다.

손법선 대구지사장

은해사·영천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1월 17일 경내 성보박물관 앞에서 영천소방서(서장 이태형)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사람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훈련에는 주지 돈관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 영천소방서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시청직원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오토바이와 소방차를 동원해 유사시 소방서에서 출

동하기 전 자체 초기 화재 진압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 실시돼 눈길을 끌었다.

돈관 스님은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등 화재의 위험을 다시 상기하고, 지역의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다 함께 지켜나가지”고 당부했다.

한편, 은해사 성보박물관에는 보물 제1604호 금고 및 금고거와 도유형문화재 제342호 후불탱화, 삼장탱화를 비롯한 은해사 분발사 문화재 및 성보 500여 점이 보관돼 있다.

조동섭 기자

난방기구 전문업체 대동 해모로 2010년형 출시!

온풍+강력난방 전기난로 88,000원

난로, 히터, 온풍기의 장점만 살린 전기난로의 결정판 - 연료식 난로의 강력한 화력 + 전기히터의 청결함 + 온풍기의 대류방식을 모두 적용한 웰빙 전기히터!!

*** 국내 생산제품 ***

올 겨울 추위걱정 싹~ 후끈 후끈 합니다. 초강력 난방능력으로 전기로 절약!!

난방비 90% 절감!
1일 8시간 사용시 3kw기준 1,612원 (누진세 미적용)

3대 만족

- 강력한 화력!
- 저렴한 가격!
- 유지비 절감 동시만족!

해모로 온풍형 히터 / 2000

- 모델명: DD-2000
- 정격소비전력: 220V/1800W
- 규격: 270×340×570mm
- 무게: 3.6kg · 난방면적: 33㎡

▶ 현금할인가: 88,000원

온풍 대류가능

- 360도 전방향 입체 난방
- 공해없는 청정난방 (무취, 무연, 무소음, 무독)
- 다양한 온도조절로 경제적
- 동급최고의 난방능력
- 초절전 설계의 경제난방
- 첨단 안전장치로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 복고풍 디자인의 정겨움
- 물을 올려 두면 가슴기로
-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편리
- 국내산으로 무상1년 A/S보장

해모로 온풍형 히터 / 3000

- 모델명: DD-3000
- 정격소비전력: 220V/2800W
- 규격: 270×340×630mm
- 무게: 4.1kg · 난방면적: 49.5㎡

▶ 현금할인가: 98,000원

품질과 A/S를 확실히 보증합니다. *무상A/S 1년*

제조원 대동해모로

일반형 (온풍기능없음)

원통형 히터 / 2000

- 모델명: 7200/2000 · 난방면적: 16.5㎡
- 정격소비전력: 220V/1800W
- 규격: 320×320×450mm · 무게: 3kg

▶ 현금할인가: 78,000원

원통형 히터 / 3000

- 모델명: 7000/3000 · 난방면적: 33㎡
- 정격소비전력: 220V/2800W
- 규격: 320×320×610mm · 무게: 3.5kg

▶ 현금할인가: 88,000원

가정용 근적외선 웰빙히터 TS-950HS (7평형)

난방각도 270° 좌·우 회전형 상·하 높이조절

수직으로 회전가능

- 전압전력: AC 220V/60Hz
- 정격소비전력: 950W, 1100W, 1300W
- 제품규격: Head: 470×210×180mm / Base: 2380mm(완전)
- 높이: 최상-1,000mm (250mm 높낮이 조절)
- 제품중량: 9.5kg
- 난방면적: 23.1㎡(7평형)
- 타이머 부식
- 전도안전장치 부착
- 일본 안전인증
- 안전난방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짐)
- 화재의 위험(합승)
- 제조원: (주)대동사

▶ 현금할인가: 135,000원

전국 어디서나

주문전화 080-838-2500

입금계좌 (예금주: 김남희) - 농협 302-0079-6034-21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신용카드 구입 가능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배송드립니다.